
글로벌 기후금융 동향 조사

2018. 08.

<목 차>

1. 기후금융의 정의 및 범위	1
2. 기후금융별 세부 현황	3
3. 주요 선진국별 기후금융 투자 현황	8
4. 주요 국가별 기후금융 동향	13
5. 우리나라의 기후금융 동향	16

글로벌 기후금융 동향 조사

GTC / '18. 08. 17.(금)

1 기후금융의 정의 및 범위

□ 정의

-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의 명확한 정의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다수의 기관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됨
 - UNFCCC는 기후금융에 대해 공공, 민간 및 대안적 재원으로부터 조성된 지역적·국가적 또는 전환적 파이낸싱으로, 주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의미한다고 언급
 -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는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융 지원, 新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기법 개선 등 금융산업 발전까지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형태로 표현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대출, 신용 보증, 보험, 펀드 등 환경 기반의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언급
 - Climate Policy Initiative(CPI)는 온실가스 감축·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저탄소 및 기후복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자금의 흐름으로 표현

□ 범위

- 기후금융은 예산의 출처에 따라 크게 공공 재원(Public Finance)과 민간 재원(Private Finance)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 재원) 공적 주체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책임을 가지고 운용하는 재원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 다자·양자 기금, 자국 내 기금이 포함
 - (민간 재원) 민간이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개발자, 상업금융기관,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탈, 인프라 펀드가 포함
- 기후금융의 수단으로는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공여**(Grants), **저금리 프로젝트 채권**(Low-cost Project Debt), **시장 금리 채권**(Project-level Market Rate Debt), **지분 투자**(Project-level Equity), 기타 (Balance Sheet Financing*, 비공개) 등이 있음

* Balance Sheet Financing이란 보유 자산에 연동된 자금 조달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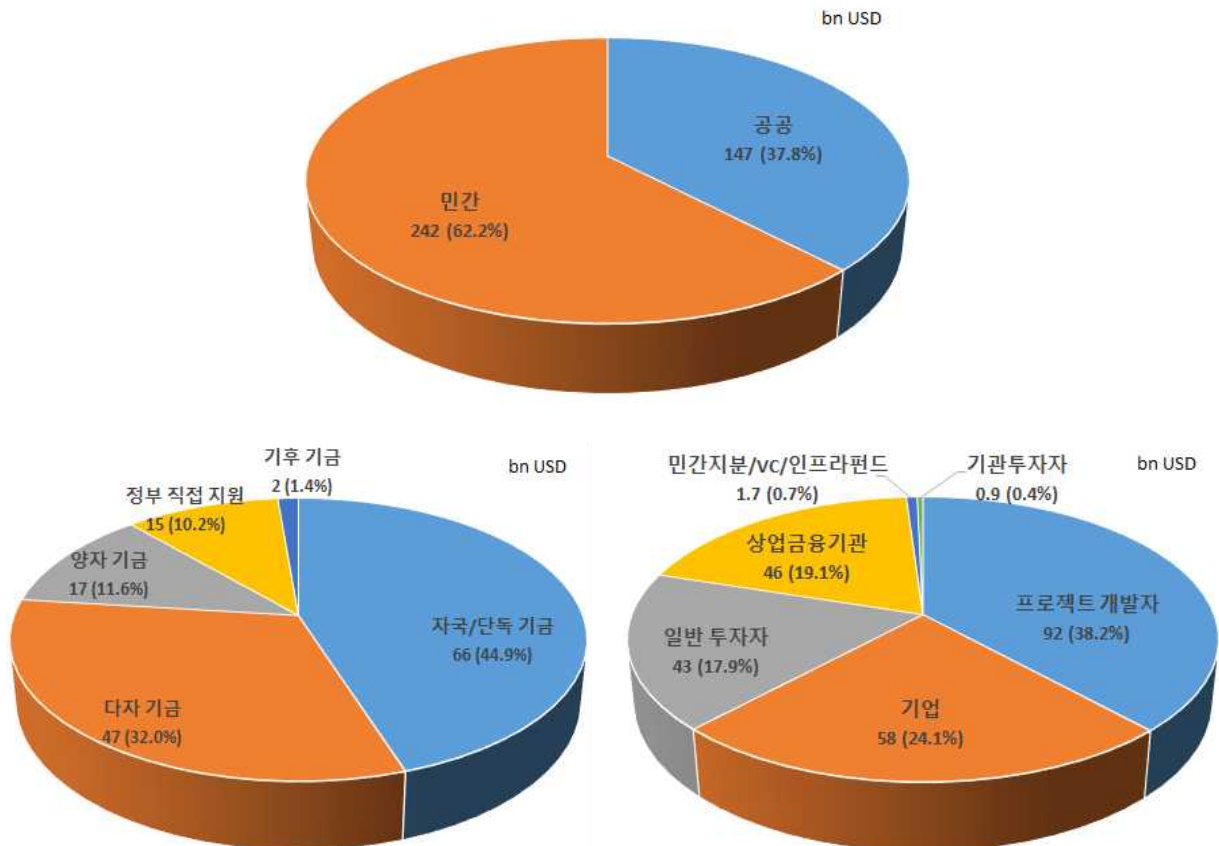
구 분	예산 출처 및 중개자	예산 (Billions)
공공 재원 (Public Finance)	○ 정부 직접 지원	\$ 12
	○ 다자 간 (Multilateral) -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 - 개발은행(Development Banks)	\$ 40
	○ 양자 간 (Bilateral)	\$ 12
	○ 자국 (National) 또는 단독 (Unilateral)	\$ 52
민간 재원 (Private Finance)	○ 상업금융기관 (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s)	\$ 42
	○ 민간 지분 (Private Equity) ○ 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 ○ 인프라 펀드 (Infrastructure Funds)	N/A
	○ 기관 투자자 (Institutional Investors)	
	○ 프로젝트 개발자 (Project Developers)	\$ 91
	○ 기업 (Corporate Actors)	\$ 56
	○ 일반 투자자 (Households)	\$ 43

* 출처: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5 (CPI)

2 기후금융별 세부 현황

□ (개요) 실제 수원국에 투자된 전체 기후금융 재원은 '14년 기준으로 389 Billion USD이며, 민간 재원이 전체 기후금융의 62.2%로, 상대적으로 공공 재원보다 많은 금액이 투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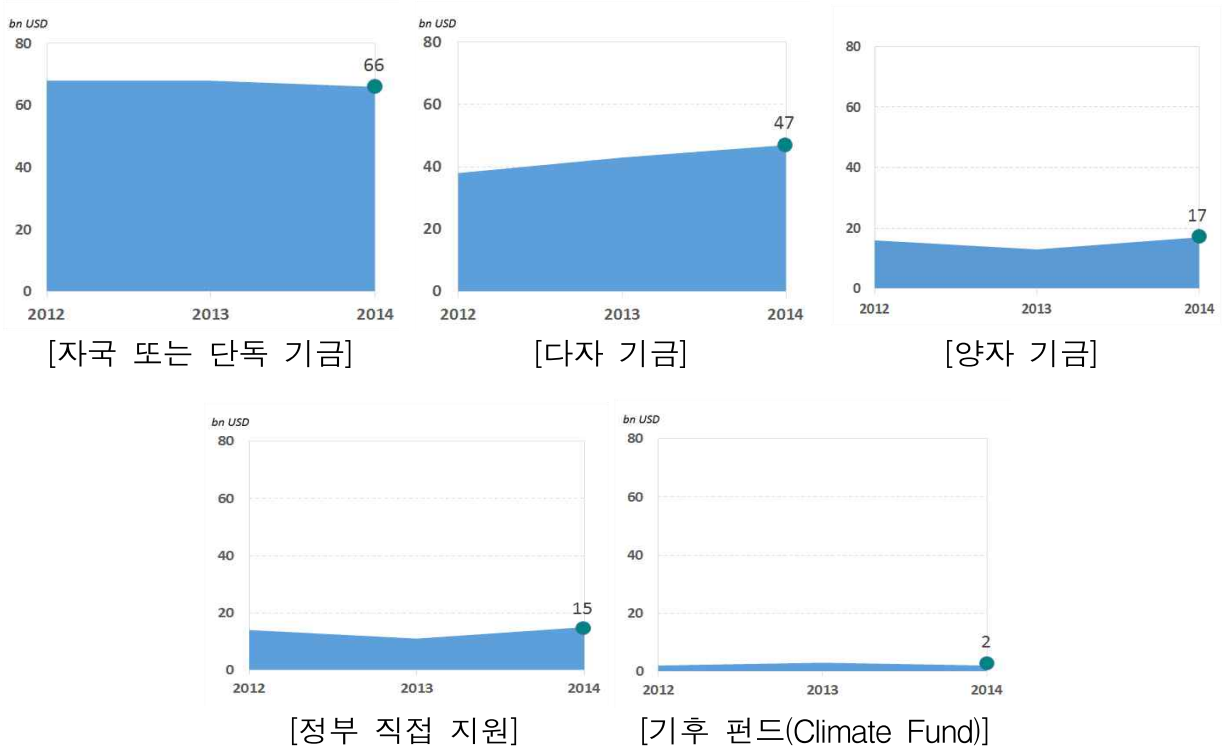
- (공공 재원) 자국 또는 단독 기금(45%), 다자 기금(42%), 양자 기금(12%), 정부 직접 지원(10%), 기후기금(1%) 순으로 투자
- (민간 재원) 프로젝트 개발자(38%), 기업(24%), 상업금융기관(19%), 일반 투자자(18%), 민간지분/VC/인프라펀드(0.7%), 기관투자자(0.4%) 순으로 상대적으로 프로젝트 개발자 및 기업에서 활발한 투자가 진행됨



[표 1] 글로벌 기후금융 관련 공공/민간 재원 및 세부 구성 ('14년)

* 출처: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5 (CPI)

□ (공공 자원) 정부 직접 지원, 다자 기금(Multilateral Fund), 양자 기금 (Bilateral Fund), 자국 또는 단독 기금(National or Unilateral Fund)으로 구분되며, '12년부터 '14년까지 대체로 투자액이 증가하는 추세임



[표 2] 글로벌 기후금융에서 공공 자원의 투자액 추이 (2012-2014)

* 출처: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5 (CPI)

- (다자 기금) 국제기구와 다자개발은행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공여, 양허성 차관을 제공
 -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은 세계은행, UNEP, UNDP가 공동 운영하며, 신탁기금(GEF Trust Fund), 최빈국기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LDCF), 특별기후변화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으로 구성

기 금 명		투자 분야
지구환경기금	지구환경기금 신탁기금	적응, 감축
	최빈국기금	적응
	특별기후변화기금	적응

-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 CIF)은 총 750억 달러 규모로 청정기술기금(Clean Technology Fund, CTF)과 전략적 기후기금(Strategic Climate Fund, SCF)으로 구성되며, 세계은행이 운영

기금명		투자 분야	
기후투자기금	청정기술기금	완화	
	전략적 기후기금	저소득국의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완화
		기후회복시범프로그램	적응
		산림투자프로그램	완화(REDD)
	Co-Financing	-	

-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은 교토의정서상 기후재원으로, 공여국의 지원 뿐만 아니라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통해 획득하는 크레딧(GER)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세계은행이 수탁기관으로 기금을 운용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총 27개 사업에 대해 11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승인
- UN은 새천년개발목표기금(MDG Achievement Fund: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Thematic Window), 유엔 산림전용방지 프로그램(UN REDD Programme)을 운영하여 적응, 감축을 지원
- 다자 또는 지역개발은행은 아시아 청정에너지 기금(Asian Clean Energy Fund), 아프리카 기후변화기금(Africa Climate Change Fund), 콩고분지 산림기금(Congo Basin Forest Fund)*, 아마존 기금(Amazon Fund)**을 운용
 - * 특히, 콩고분지산림기금은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UK)이 공여하여 카메룬, 기니,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Climate Funds Update에서는 Multi-Donor Regional로 분류
 - ** 아마존 기금은 노르웨이, 독일의 공여 및 자국 정부의 출자를 통해 조성

기금명	운영 기관	투자 분야
글로벌 기후변화 얼라이언스	유럽위원회	적응, 감축

기금명	운영 기관	투자 분야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기금	유럽위원회	완화
아시아 청정에너지 기금	ADB	
아프리카 기후변화기금	AfDB	
콩코분지산림기금	AfDB	완화

- 북유럽 국가는 노르딕 기후금융기구(Nordic Climate Facility)를 통해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에 있어서 노르딕 국가와 협력국의 파트너십 강화 및 개발도상국의 기후 프로젝트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NEFCO* 탄소기금(Carbon Fund)을 조성·운영

* NEFCO : Nordic Environment Finance Corporation

- (양자 기금) 양자 기금은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국에 기후 프로젝트를 투자 및 지원할 목적으로 단일 국가가 조성한 기금으로, 영국(UK), 독일,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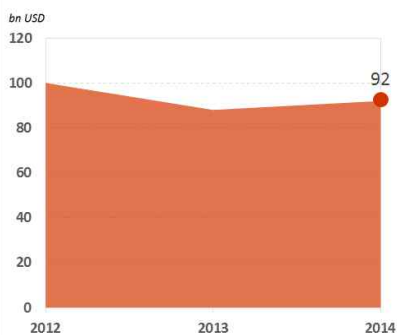
국가명	기금명	운영 기관	투자 분야
영국	국제기후기금	영국 정부	적응, 완화
독일	국제기후이니셔티브	연방독일환경부	적응, 완화
호주	국제산림탄소이니셔티브	DCCEE, AusAID	완화(REDD)
노르웨이	국제기후 및 산림이니셔티브	노르웨이 환경부	완화(REDD)
덴마크	기후투자기금	IFU	
일본	긴급자원: 공공/민간	일본 재무성	적응, 완화
	일본국제협력단		적응, 완화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KOICA		

- (자국 또는 단독 기금)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프로젝트에 투자 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영국, 덴마크, 호주를 예로 들 수 있음
- (기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개도국은 복수 공여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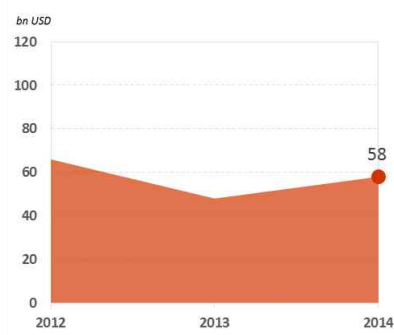
조성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도국 별도의 기금을 조성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기후변화회복기금(Bangladesh Climate Change Resilience Fund)은 덴마크,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스위스, 호주, 미국이 공여한 기금이며, 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영향의 회복에 사용
- (인도네시아) 복수 공여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기후변화 신탁기금(Indonesia Climate Change Trust Fund)을 조성
- (브라질) 노르웨이, 독일의 공여 및 자국 정부의 출자를 통해 아마존 기금(Amazon Fund)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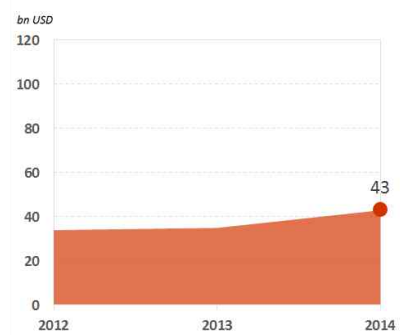
□ (민간 재원) 민간 재원은 상업금융기관, 민간 지분, 벤처캐피탈, 인프라 펀드, 기관 투자자, 프로젝트 개발자, 기업, 일반 투자자에 의해 조성되며, 대체로 '13년에 감소하다가 '1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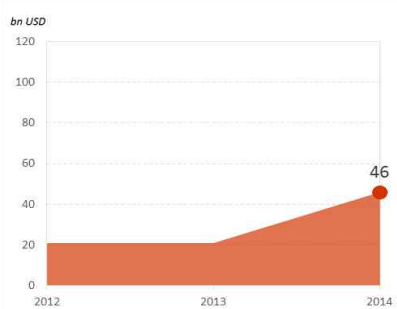
[프로젝트 개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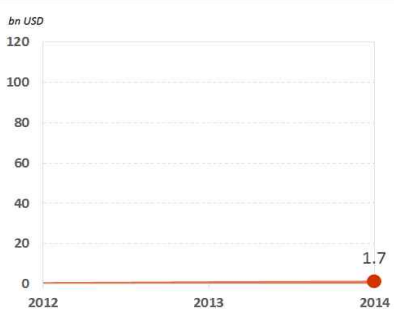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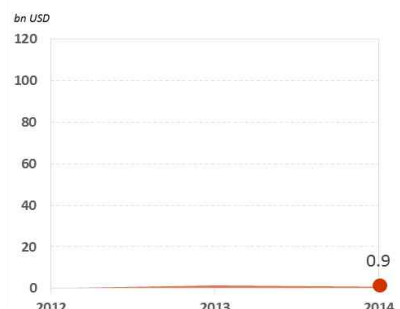
[일반 투자자]



[상업금융기관]



[민간 지분, VC, 인프라 펀드]



[기관 투자자]

[표 3] 글로벌 기후금융에서 민간 재원의 투자액 추이 (2012-2014)

* 출처: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5 (CPI)

- (상업금융기관) 단기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업은행**과,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거래,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은행**으로 구성
- (민간 지분, 벤처캐피탈, 인프라 펀드) 벤처캐피탈은 잠재력이 있는 벤처 기업에 자금 및 경영·기술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높은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이며, 인프라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로 리스크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목적임
- (기관 투자자)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험 회사, 연기금(Pension Fund) 등이 포함
- (프로젝트 개발자)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설계, 운영, 유지·보수 하는 주체로, 에너지 기업이 해당
- (기업) 단지 활용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비 에너지 기업으로 코카콜라 및 구글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 (일반 투자자) 가계 단위의 경제 주체, 고액순자산보유자(High-Net-Worth Individuals)나 중개자가 일반 투자자에 해당

3 주요 선진국별 기후금융 투자 현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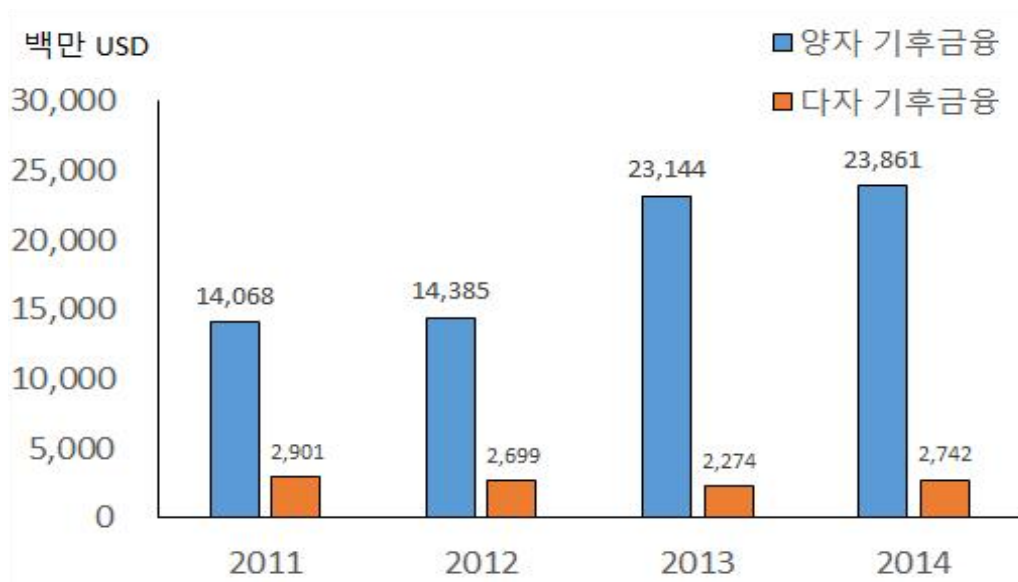
※ 본 투자 현황은 개도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촉진 의무가 있는 부속서 II 국가 대상으로 UNFCCC에서 집계한 통계자료이며, 본 자료의 수치는 주요 선진국 정부가 다자기금*과 양자기금에 투자한 금액을 의미

* 본 다자기금은 개발은행에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국제기구에 직접 지불한 금액을 의미 (개발은행을 통한 기금 운영은 기후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기후 금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자료에서는 제외)

1) UNFCCC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UFCCC, 2016)

□ 글로벌 기후금융 투자 추이

- 글로벌 기후금융에 대한 투자는 '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4년에는 26.6 Billion USD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양자 기후금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양자 기후금융의 경우, '11년부터 '14년까지 연평균 19.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1년 14.1 → '14년 23.8 Billion USD)
 - 이에 반해 다자 기후금융은 '11년 이후 '14년까지 연평균 -1.9%로 일부 감소하여 정체 ('11년 2.9 → '14년 2.7 Billion USD)되어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확한 기후금융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다자개발은행에 지불한 금액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자 기후금융 수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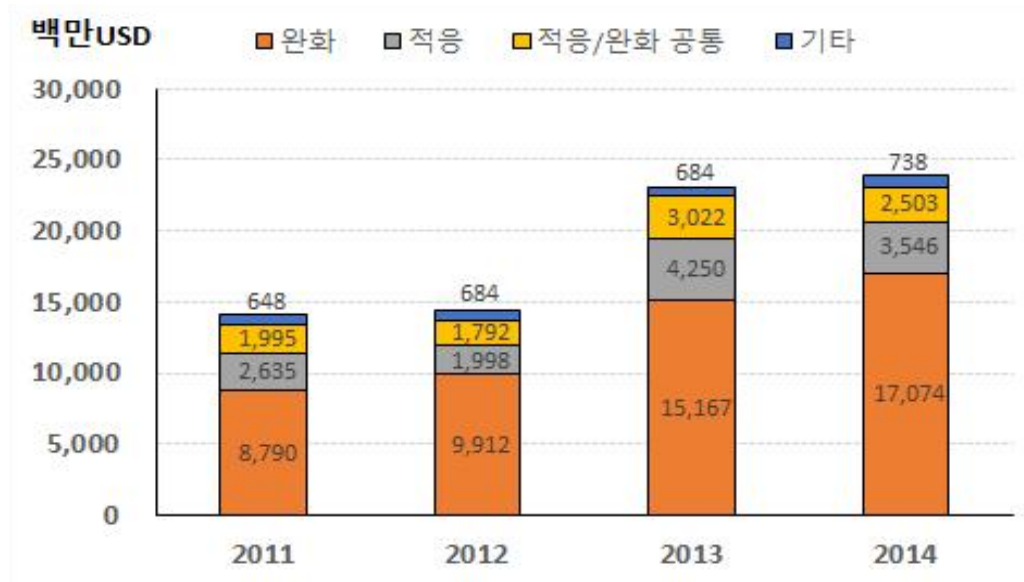


[표 4] 글로벌 기후금융 총액 추이 ('11-'14년)

* 출처: UNFCCC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UNFCCC,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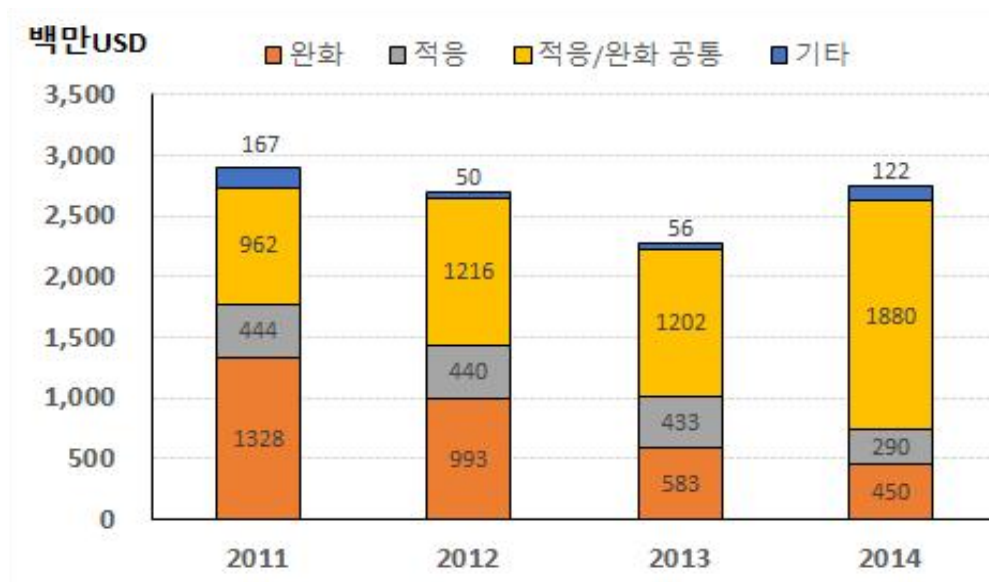
- 기후금융 투자를 완화, 적응, 공통, 기타의 세부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자 기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완화분야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다자 기금은 공통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임

- (양자 기후금융) 완화 분야는 '11년 대비 '14년에 17.1 Billion USD로 대폭 증가
- (다자 기후금융) 완화/적응의 공통분야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11년 0.96 → '14년 1.88 Billion USD)하였으나, 완화 및 적응 분야의 투자액은 전반적으로 감소



[표 6] 양자 기후금융 분야별 투자 추이 ('11-'14년)

* 출처: UNFCCC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UNFCCC,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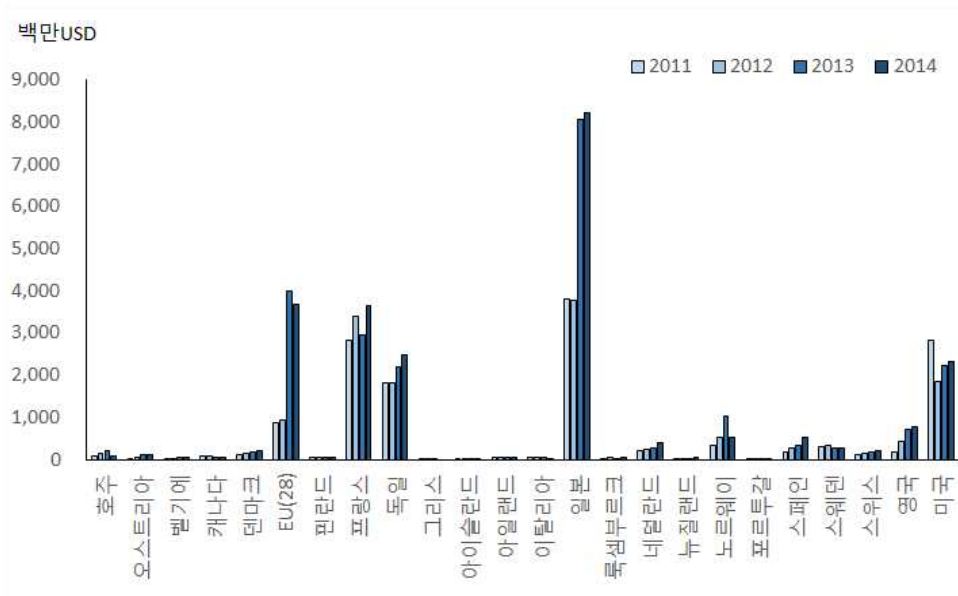


[표 5] 다자 기후금융 분야별 투자 추이 ('11-'14년)

* 출처: UNFCCC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UNFCCC,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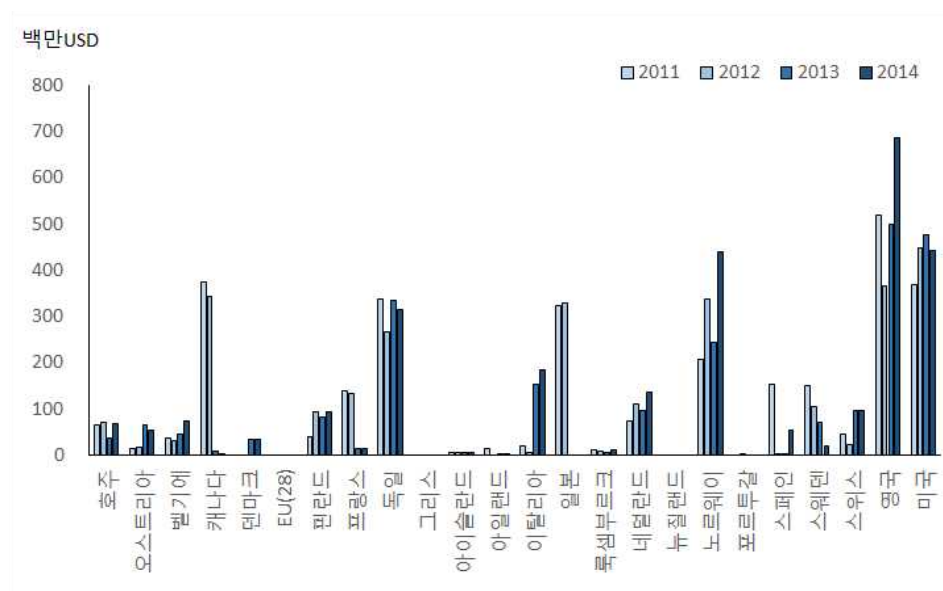
□ 국가별 기후금융 추이

- 일본 및 독일의 경우 '11년 이후 '14년까지 양자 기후기금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영국 및 노르웨이의 경우는 '13년 이후 다자 기후기금에 보다 많은 투자를 진행



[표 7] 국가별 양자 기후금융 투자 추이 ('11-'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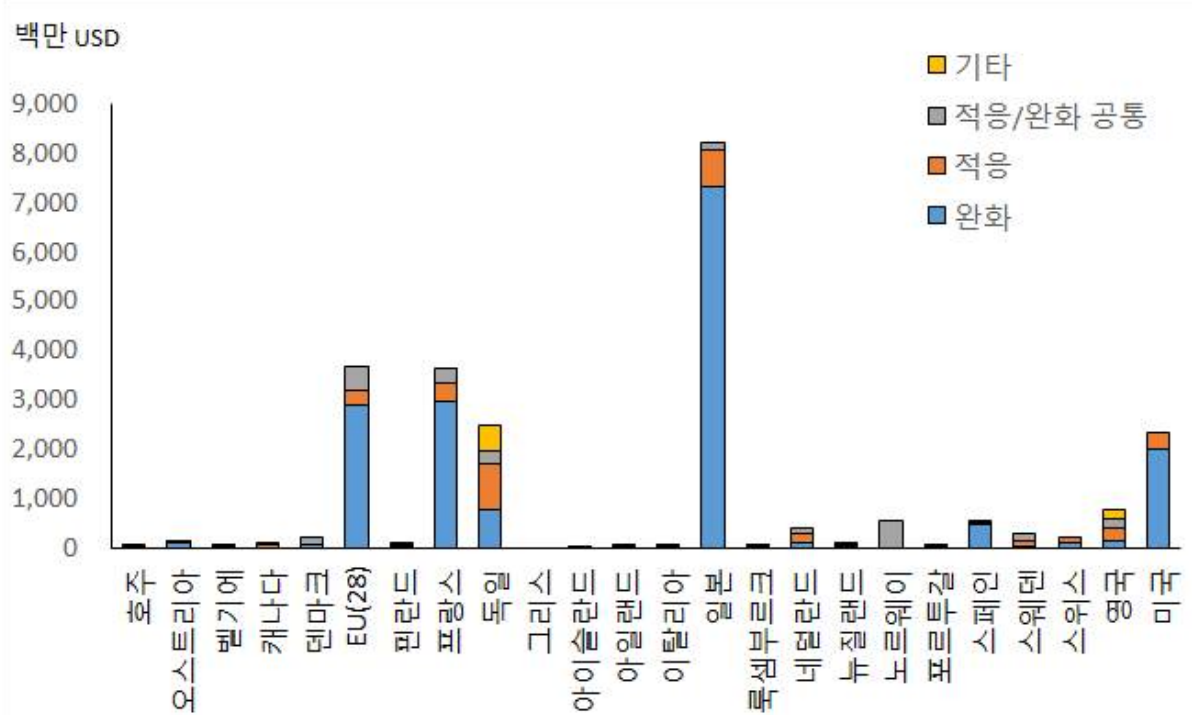
* 출처: UNFCCC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UNFCCC, 2016)



[표 8] 국가별 다자 기후금융 투자 추이 ('11-'14년)

* 출처: UNFCCC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UNFCCC,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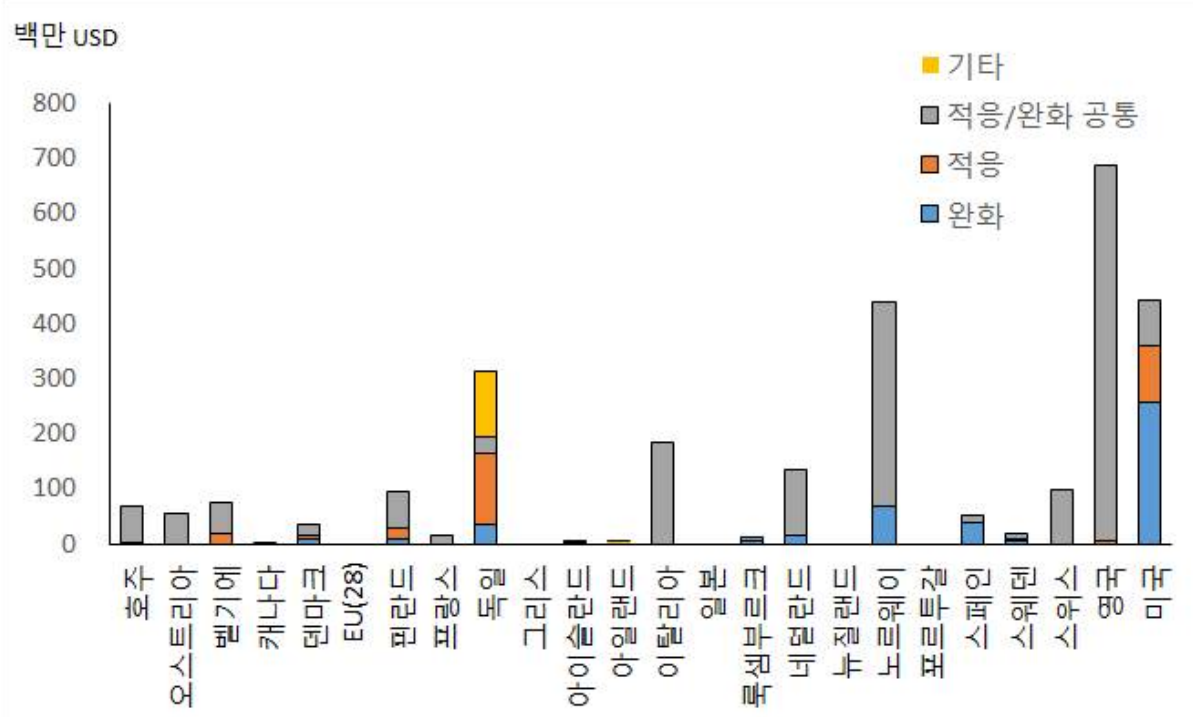
- '14년 기준 국가별 양자 기후금융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본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그 다음 EU (28개국), 프랑스, 미국 순으로 투자를 강화하였고, 그들 대부분의 상위 국가들은 **완화 부문에 투자를 집중**



[표 9] 국가별 양자 기후금융 투자 현황 ('14년)

* 출처: UNFCCC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UNFCCC, 2016)

- **다자 기후 금융은 '14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응/완화의 공통 분야에 집중 투자**
 - 영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적응/완화 공통 분야에 편중되었고, 그 다음은 미국, 노르웨이, 독일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노르웨이 또한 영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응/완화 공통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였으나, 독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응 분야의 투자 비중이 큼



[표 10] 국가별 다자 기후금융 투자 현황 ('14년)

* 출처: UNFCCC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UNFCCC, 2016)

4 주요 국가별 기후금융 동향

-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도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
 -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는 민간자본을 개도국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주로 부채조달(Debt Financing), 정치적 위험 보장(Political Risk Insurance), 사모펀드 지원(Support for Private Equity Funds)등을 제공
 - 태양광(칠레), 풍력(자메이카), 오지지역의 전기 공급(인도), 수자원(알제리)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6.8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 또한 해외민간투자공사는 2013년 미 국무부, 무역개발처와 함께 미국-

아프리카 간 청정에너지 금융이니셔티브(U.S.-Africa Clean Energy Finance Initiative, ACEF) 발족

□ (독일) 국제기후이니셔티브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산업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완화, 적응, REDD+*, 생물다양성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

* 개발도상국에서의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방지를 통한 배출량 감소, 산림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경영의 역할과 탄소 축적의 증대

○ 사업 초기에는 EU-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의 수익을 특별에너지기후펀드(Special Energy and Climate Fund)를 통해 배정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현재는 독일정부의 예산으로 운영 중

□ (영국) 영국정부는 자국의 녹색 프로젝트를 지원할 목적으로 녹색투자은행을 설치하여 총 84건의 녹색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후투자유한책임회사 설립 및 국제기후기금을 조성

○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 GIB)은 자국의 해상풍력, 에너지 효율, 폐기물·바이오에너지, 육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 기후투자유한책임회사는 개도국의 녹색 인프라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녹색투자은행(GIB)과 에너지기후변화부(DECC)가 설립한 별도의 기관으로 Joint Venture 형태의 기금(2억 파운드 규모)을 조성하여, 인도, 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케냐, 르완다, 탄자니아)을 대상으로 지원

○ 국제기후기금(UK's International Climate Fund)은 다자기금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 대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양자성 기금도 일부 병행

□ (노르웨이) 노르웨이 국제기후 및 산림이니셔티브(Norway's 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는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양자성 기금으로 인도네시아, 가이아나, 탄자니아, 멕시코의 프로젝트에 투자

□ (덴마크) 덴마크 기후투자기금은 덴마크 기업 참여 등 자국의 보유 기술 활용을 기반으로 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젝트를 지원

- 덴마크 기후투자기금(Danish Climate Investment Fund)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 및 IFU(Investment Fund for Developing Countries, IFU), 개인투자자가 조성한 기금
- 동 기금은 ① 기후변화 영향 및 온실효과를 저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② 개도국 및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덴마크 자국의 기술 이전 활성화 및 시장 확대 차원의 프로젝트에 투자
 - 현재까지 태양광(몰디브), 풍력(케냐), 수처리(중국) 관련 총 6건의 투자가 승인되었으며, 모든 프로젝트에는 실제 덴마크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호주) 청정에너지금융공사를 통해 자국의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개발도상국의 탄소흡수량 증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

- 국제산림탄소이니셔티브는 개발도상국의 산림황폐 및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프로그램으로 기후변화 에너지효율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Efficiency, DCCEE)와 국제개발청(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AID)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의 프로젝트 및 REDD+를 위한 NGO,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청정에너지금융공사**(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CEFC)는 자국 내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호주재생에너지청과 **청정에너지혁신기금**(Clean Energy Innovation Fund)을 공동 조성하여 **이머징 기술 개발에도 투자**

- **(일본) 일본국제협력단, 일본국제개발은행, 일본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자국 기업 및 보유 기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은 공여, 보증, 지분 참여 등의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자국 기술 개발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4개 그룹*을 운영
 - *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Finance Group,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Finance Group, Industry Finance Group, Equity Finance Group
 - **일본국제협력단**(JICA)은 자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화 및 적응 등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투자, 마스터플랜 수립, 공여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일본무역보험공사**(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NEXI)는 대외 거래 시, 민간보험이 다루지 않는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 수출대금보험 등을 제공

5 우리나라의 기후금융 동향

- 우리나라는 국제기금 및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다자/양자성 자금 지원 및 양자성 ODA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나, 양자·다자,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소관 부처 및 시행 기관이 분리되어 운영

-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무상 양자성 기금을 관리하고, 유상 양자성 기금은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에서 담당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산업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프로젝트 사업 및 민관협력(기업협력 사업 등)을 지원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개도국에 차관, 출자, 보증을 지원하며, '15년 對 개도국 차관사업(102건)에 대해 7,343억 원의 자금을 집행하였고,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등 기후변화 관련 사업도 다수 포함²⁾
 - ※ 국내 기업은 EDCF에서 발주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또는 EDCF로 지원된 사업에 대한 개도국 발주 사업(컨설턴트 및 공급자 선정)에 참여 가능
-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출자·출연을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빈곤 감축 등 국제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
 - '15년 10개 신탁기금*에 총 8,137만 달러(약 971억 원)를 출연하였으며, 사업별로는 환경·수자원(27%), 교통·도시·지역개발(13%)을 지원³⁾
 - * ① (세계은행) 한·WB 협력기금, 녹색성장기금, 빈곤감축기금, 농업식량안보 기금, ② (미주개발은행) 재정혁신협력기금, ③ (유럽부흥개발은행) 한국기술자문 협력기금, 초기체제전환국원기금, ④ (AfDB)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기금, ⑤ (ADB)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 ⑥ (국제통화기금) IMF 기술협력기금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GCF에 약 2,500만 달러(약 281억 원)를 공여하고, ADB에 4조 1092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

□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해외 진출 관련 금융서비스 및 금융기관과 연계된 간접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 육성을 도모하거나 개도국 지원을 위한 양자성 기후금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금 조성은 미흡한 상황

- (KDB 산업은행) 국토교통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타당성 조사 등

2) 2015년 4분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자료(기획재정부, 2015)

3) 2015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출연 현황(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01)

사업 발굴 지원과 산업은행의 글로벌 인프라펀드, 산업은행 특별 자금* 등 금융을 연계,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시 금리 우대(0.5%) 등 지원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수주 활성화를 위해 다자개발은행, GCF, 무역보험공사와의 협조유자를 위한 자금(약 10억 달러 조성)

-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대출(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및 보증(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을 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및 중소기업 특별 지원(수출첫걸음 희망보험, 무역보험 특례 지원, 단체보험, 수출희망보증 등)을 통해 리스크가 높은 신시장 개척 지원 및 시장 다변화 도모
- **(기술보증기금)** 잠재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대상의 보증을 지원하며, 기술평가를 통해 성장단계별로 투·융자, 보증, 출연, 복합금융 등의 기술금융상품을 연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펀드(‘21년까지 2,500억 원 투자 계획)를 운용할 계획으로 유망 환경기업 및 환경 프로젝트 수출에 60% 투자 예정
- **(기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는 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